

전기 난로 · 이슬 · 예산 · 2005 · 버스 · 기차 · 여행

올해 가을도 아주 짧습니다. <출판저널> 기자들은 손이 시러워서 기사를 못 쓰겠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회전형 전기난로를 사들이는 가을의 법석을 떨어야 했습니다. 기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이 나빠 좋은 기사를 못 쓰겠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인들은 이슬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하고, 출판산업 역시 이슬 먹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투자에 비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역설 앞에 우리는 몸뚱이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문화환경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10월은 의미 깊은 달이었습니다. 우선 20여 명 넘는 출판문화계 인사, 정부 관계자들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출장을 빙자한 유럽 관광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유럽문화의 토대를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2005년 주빈국 행사 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저녁에는 맥주맛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대화의 화두는 한국문화의 유럽 진출 기회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그들,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인사들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간담회 자리에 불러 노타이 차림으로 2005년 주빈국 행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칠게 얘기하자면, 기 죽을 것도 없고, 미리 예산 타령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없고, 2005년의 효과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전 같으면 장관과 관료들이 어떻게든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내는가에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한 문화계 인사들이 과욕을 부리지는 말자고

분위기를 가라앉혔을 정도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문화계의 바람직한 현상 중의 하나라고 <출판저널>은 여깁니다. 그 어디쯤에서 가장 조화로운 접점이 생겨 2005년 주빈국 행사가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우리 문화계도 흥금을 터놓고 문화지도를 그리는 자리에 웃음꽃이 필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11월호에 기획회의 때보다 많은 지면을 프랑크푸르트도서전과 2005년 주빈국에 할애한 것은 이런 문화계의 흐름이 일반인들에게 좀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발적으로 주빈국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상품 마케팅·도서전시회 컨셉·공연과 전시의 역동성·독일 전역을 향한 홍보 방향 등에 대해 꾸준하면서도 집요한 기획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므로써 2005년 주빈국 행사가 <출판저널>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내외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판저널>이 영화음악가이자 사진작가이며 비디오 아티스트인 전상윤씨와 동행해 60분 분량 비디오 테이프 9개를 촬영해 오고, 무려 1,200장의 사진을 찍어온 것도 이런 의지의 한 표현입니다. 이런 의지가 2005년은 물론 그 너머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한국문화의 깊이와 너비가 세계인의 가슴판을 진동시킬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출판저널> 역시 강건하게 여전히 걸어온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동행자가 바로 독자 여러분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번호 큰 특집은 여행 산문집의 세 번째입니다. <출판저널>을 들고 시외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십시오. 여행길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속삭여 줄 것입니다.